

## 0808(월) 예레미야 4-6장 돌아오라!

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었습니다(1:1).

아나돗은 붕괴된 옛 실로 성소, 엘리 가문과 관련된 곳으로

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주변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.

(왕상2:26-27, 파면된 제사장 아비아달, 엘리의 후손, 옛 실로성소)

하나님은 <돌아오라> 명하십니다(3:12-14, 22, 4:1).

❶ 돌아온다는 것은 <하나님께>로 돌아오는 것입니다(4:1).

❷ 열강과 세상 권세, 나의 우상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.

❸ 성도의 삶에는 자연스레 <정의와 공의>가 드러납니다(4:2).

남 유다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결여되어 있었습니다.

(5:1-9, 20-31, 6:6-7, 13)

자칭 하나님 백성이라면서도 그분을 모르는 백성들에게(4:22)

예레미야는 왕국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(4:6, 12, 16, 5:15, 6:1, 22).

그는 옛 실로 성소의 흥망을 잘 아는 아나돗 사람입니다(7:12, 14, 26:6, 9).

하나님 없이는 다윗 언약과 성전도 심판과 멸망의 대상임을

그 누구보다 통감하며 선포할 만한 선지자였습니다.

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근심했습니다.

<아이>란 표현에는 부족함과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담겼습니다(1:6).

그러나 주님은 <모테에 짓기 전부터> 그를 성별하셨습니다(1:5).

아무것도 확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을 때, 선택하신 것입니다.

사역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좌우되지 않습니다.

어디든, 무엇이든 말씀대로 순종할 때,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(1:7-8).

예레미야는 순종했고 견고한 성읍이 되리라 약속받습니다(1:18).

그러나 불순종한 유다는 황폐한 성읍이 될 것입니다(4:26, 6:8).

나는 참 <사명자>입니까?

❶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심을 인지하며 순종에 전념하고 있습니까?

❷ 나의 한계를 넘어 <일하실> 또한 <일하게 하실> 주님을 신뢰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예레미야 4-6장